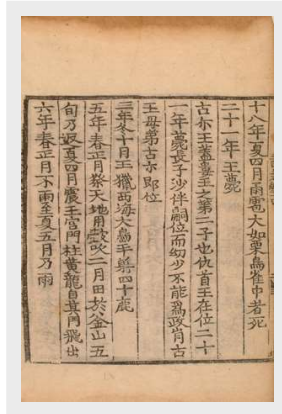


고이왕[古爾王]

백제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다

미상 ~ 286년(고이왕 53)



삼국사기 고이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고이왕(古爾王)은 백제 제8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234년~286년이다. 좌평제와 관등제의 설치, 공복의 제정, 율령의 반포 등을 통해 고대 국가로서 백제의 국가체제를 확립했다. 대외적으로는 마한의 영도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한(漢)의 군현(郡縣)과도 대등하게 싸웠다.

2 고이왕의 출계와 왕위계승

고이왕은 구이왕(久爾王) 또는 고모왕(古慕王)이라고도 한다. 제4대 개루왕(蓋婁王, 재위 128~166)의 둘째아들이고, 제5대 초고왕(肖古王, 재위 166~214)의 동생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개루왕과 고이왕의 즉위 연대가 100년 이상 차이 나고 있어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234년부터 286년까지 53년간 백제를 통치하고, 아들인 책계왕(責稽王, 재위 286~298)이 왕위를 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이왕의 즉위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다. 제6대 구수왕(仇首王, 재위 214~234)이 죽자 맏아들인 사반왕(沙伴王)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제5대 초고왕의 동복 아우(母弟)인 고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관련사료** 이유가 어떻게 사반왕이 즉위했다가 다시 고이왕이 즉위한 것이어서, 왕위계승 자체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제 초기의 왕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먼저 백제 초기의 왕계를 이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백제왕들의 출계가 주몽(朱蒙)의 아들인 온조(溫祚)와 우태(優台)의 아들인 비류(沸流)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주몽-온조-초고(肖古)로 이어지는 이른바 '초고계'와 우태-비류-고이로 이루어지는 소위 '고이계'가 있었으며, 두 계통에 의해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고이왕이 "초고왕의 모제(母弟)"라고 되어있는 기록에서 '모제'를 '동복 아우'가 아니라 '어머니의 동생'이라고 해석하고, 그 계통을 우씨로 파악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고이왕의 즉위를 왕실의 교체로 이해한다. 주몽과 온조를 시작으로 초고왕-구수왕-사반왕까지 직계로 이어지던 왕위계승이 고이왕에 이르러 갑자기 방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이왕은 사반왕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저변으로 토해 주